

南海岸 巨濟島 隣近 島嶼의 人類學的 調查報告

韓 相 福·金 鐘 湔
(서울대학교 人類學科)

An Anthropological Study of the Isolated Islands off the South coast (Geojedo Island) of Korea

by
Han, Sang-Bok and Chong-H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序 言

이 報告書는 文化放送·京鄉新聞社의 지원을 받아 韓國自然保存協會가 주관한 慶南 巨濟郡과 統營郡의 隣近 落島 綜合學術調查의 一部로 1978年 7月 18일부터 7月 23일까지 행한 社會文化班의 人類學的 現地調查資料를 정리한 것이다.

實際調查는 7月 19일부터 7月 22일까지 나흘이었는데 19日에는 比珍島의 外港과 蓮花島의 蓮花里를 각각 두세시간씩 조사했고, 저녁에는 閑山島의 面所在地인 荷所里에 묵으면서 面事務所의 住民登錄카드와 戶籍을 열람하여 資料를 수집하였다. 둘째날인 7月 20日은 鴻島, 7月 21日은 國島와 葛島, 마지막날인 7月 22日에는 猪仇島의 굴양식장과 갈곶리(芻串里)의 巨濟 海金剛과 制勝堂을 각각 돌아보았다.

社會文化班은 이중 住民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고 이 지역 주민 生活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는 比珍島의 外港, 蓮花島의 蓮花里, 國島, 葛島 등에 集中하여 住民의 特性, 人口構成, 歷史的背景, 通婚圈, 初婚年齡, 經濟生活, 信仰 및 儀禮生活 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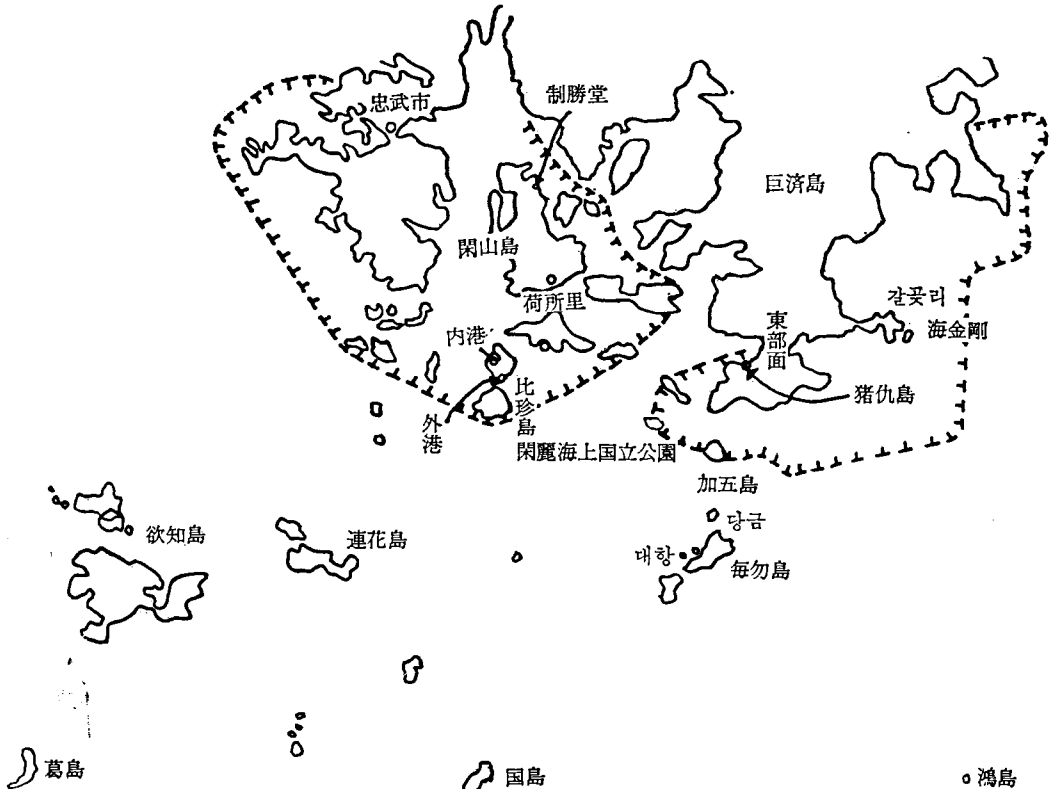
이번에 조사된 도서들은 자기 육지와와의 거리에 따라 여러가지 면에서 그 特徵이 相異하게 나타나므로 그 특성에 따라 세 地域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첫째는 沿岸島嶼地域으로서 閑山島 南部 荷所里와 巨濟島 南部 갈곶리(芻串里), 猪仇島의 굴양식장 및 比珍島를 함께 묶을 수 있겠고, 中間島嶼地域으로는 蓮花島와 每勿島를, 落島島嶼地域으로는 國島와 葛島를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세 지역은 엄격하게 말해서 그 특성면에서 구분이 뚜렷한 것은 아니며 比珍島같이 모호한 곳도 있다. 每勿島, 加五島에는 직접 上陸하여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隣近 島嶼에서 청취한 傳聞資料를 중심으로 分析의 便易上 삽입시킨 부분도

있다.

調査方法이 住民들과 함께 生活하는 참여관찰이 되지 못하고 海안경비정으로 各 섬을 잠깐씩 들러 면접과 섬에 비치되어 있는 「現況」資料에 主로 依存했기 때문에 이 報告書가 充分하고도 本格的인 情報의 分析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그러한 「現況」資料조차 구할 수가 없는 곳 (葛島)도 있었다. 1973년에 內務部에서 펴낸 「島嶼誌」도 참고하였으나 어떤 資料는 실제와 차이가 너무 큰 것도 있었다. 예를들면 每勿島는 葛島나 國島보다 면적이 훨씬 (3배 이상) 큰데도 海안선 길이는 半밖에 안되며 家口數라든가 경지면적 또는 어선현황 등이 실제로 조사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自然環境과 地理的 特性

調査地域은 경상남도의 巨濟島 아래에 散在한 섬들이며 行政區域上으로는 統營郡 閑山面(閑山島, 比珍島, 鴻島, 每勿島)과 同郡 欲知面(蓮花島, 葛島, 國島), 그리고 巨濟郡 東部面(巨濟海金剛)에 걸쳐 있다(第1圖參照). 이 지역은 年중 난류의 影響을 받아 地극히 온난한 海양성 기후를 이루며 우리나라 多島海의 特徵的인 곳으로 閑山面만 해도 27개의 섬이 있고 이중 有人



第1圖 調查 島嶼 地域

島는 19개, 無人島가 8개가 된다.

忠武는 이 지역의 社會·經濟·文化的 中心地이다. 忠武에서 調查對象島嶼들 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면 閑山島와 比珍島는 15km以內에 들어있고, 國島, 葛島는 30km以上 떨어져 있으며, 蓮花島, 每勿島는 그 중간에 해당된다. 航海時間(客船)으로 보면 忠武에서 比珍島까지 1時間半, 蓮花島와 每勿島까지는 3時間半, 國島와 葛島까지는 5時間以上 걸린다.

陸地와 비교적 近接해 있는 閑山島, 巨濟 갈곶리 등의 沿岸地域에는 平地가 넓어 논·밭 등의 경작지가 많지만 落島地域으로 갈수록 섬이 가파른 경사를 이루어 배를 댈만한 곳도 별로 없다. 또 沿岸地域은 섬으로 둘러 싸여 잔잔한 內海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養殖業이 성행되고 있지만 落島地域은 風害에 강하다는 말이 잘 안될 정도로 바람이 세차고 水深이 깊기 때문에 養殖業이 不振하다.

交通便으로 볼 때 閑麗海上國立公園으로 指定되어 있는 沿岸地域에는 유적지(제승당), 명승지(갈곶리등), 해수욕장(比珍島) 등이 있어 交通便이 상당히 빈번하다. 比珍島는 이 일대의 유일한 海水浴場을 갖고 있고 거제 갈곶리의 海金剛도 매우 有名한 관광지여서 특히 여름에는 忠武, 서울 등지에서 물려온 人波가 붐비고 있다. 海金剛은 바다의 海蝕作用으로 바위가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어 바다의 金剛山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인데 여름 한철은 민박등의 관광수입이 적지않다. 그러나 落島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國島에는 忠武에서 欲知를 거쳐오는 배가 3일에 한번, 葛島에는 5일에 한번씩 往來하고 있다. 더구나 파도가 셀 때는 잔잔해질 때까지 일체의 교통편이 두절되어 어떤 때는 한달 이상이나 缺航되는 경우도 있다. 육지우체국에서 취급하는 通信은 흔히 반달가량이나 걸린다. 이러한 落島地域의 地理的 孤立性은 교통이 不便하던 옛날에는 더욱 심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歷史的 背景

이번 調查對象島嶼에 대한 考古學的 調査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서울大學校의 東亞文化研究所가 1968년에 펴낸 「南海島嶼考古學」에 巨濟島와 欲知島에 대한 調査가 나와 있다. 여기에 따르면 巨濟에는 支石墓, 磨製石斧, 磨製石劍, 金海土器 및 高麗靑磁와 같은 유물이 발견되었고 三國時代 古墳出土라고 생각되는 壺나 高杯類도 보인다. 그리고 欲知島에서는 金海土器와 新羅土器片을 포함하는 貝塚이 발견되었고 統一新羅期의 高壺와 高麗의 瓶도 발견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와같은 巨濟島와 欲知島의 出土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그 섬들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居住歷史는 三國時代 以前이나 그 당시의 유물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다.

蓮花島의 頂上에는 임진왜란때 사명당이 수도했다 하여 이를 기리는 祭堂이 있고 그 근처에 굴집질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貝塚인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 住民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섬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統營郡 道山面 水月里 2구에서 온 金海 金氏의 金道文氏 兄弟라

고 하며 현재 入島祖의 4代孫이 살고 있다.

國島에는 蓮花島에서 移住해온 金敬八氏(生存했으면 120歲)가 처음 살기 시작했는데 흉년이 들어 밀치잡이를 하러 이 섬에 와보니 칩이 많고 굶은 잡목도 많았으며 이 섬에 정착해 밭 2,000坪을 일켰으나 쥐가 곡식, 무우 등을 모두 갉아 먹었다고 한다.

葛島의 1次 개척은 지금부터 150年前에 실시되었었는데 약 100年前 癸卯年 보리흉년때 閑山島地域으로 모두 떠났다고 한다. 그 당시에 葛島의 戶數는 70호 가량이었다고 한다. 그때 河東으로 갔던 李元植氏(당시 30歲)는 農事를 잘 못하고 적응이 되지 않아 자식들과 부인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고 한다. 그후 다시 나가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90歲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현재 李氏의 子孫이 8家口 살고 있다.

比珍島는 秋氏와 金氏가 약 400여년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정착설화가 있다.

閑山島 일대는 임진왜란 때의 격전지였던 만큼 이에 관한 많은 遺跡 및 說話가 곳곳에 있다. 이 섬에는 이순신장군의 影像을 모신 制勝堂을 비롯하여 頭億里등 그날의 勝戰을 想起시키는 地名이 많다. 比珍島라는 이름도 閑山大捷을 이룬 寶貝와 같은 섬이라 하는데서 由來하였다고 한다.

住民의 特性和 人口構成 및 教育

현재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落島地域住民의 居住歷史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00여년前으로 생각된다. 그후 이곳은 주변 島嶼와 沿岸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漁民들이 찾아드는 곳이었다. 調查地域 섬들의 性別 人口數와 家口數 및 면적과 海岸線의 길이를 포함하는 島嶼概況은 <第1表>와 같다.

住民들의 構成과 移動을 알기 위해 閑山面事務所에 비치되어 있는 比珍島 內港과 外港, 每勿島의 당금과 대항, 그리고 가왕도의 住民登錄表에서 그들의 本籍과 出生地 기타 移動事項을 조

<第1表>

各 島嶼의 概況

島 嶼 名	人 口			家 口 數	면적 (km ²)	해안선길이 (km)	
	計	男	女				
比 珍 島	內 港	545	268	277	93	4.1	6
	外 港	430	222	208	81		
每 勿 島	대 항	328	162	166	70	2.4	4(?)
	당 금	324	158	166	68		
蓮 花 島		836	436	400	154	3.41	12.5
葛 島		143	76	67	27	0.91	9.6
國 島		65	38	27	16	0.4	4.5

사하였다.

이 資料에 따르면 그 섬에서 出生한 토박이가 比珍 內港에서는 82%, 外港에서는 87%이며 매물 당금에서는 75% 대항에서는 83%였으며 가왕도에서는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지역 이외에 본적을 두었거나, 조사지역에 본적을 갖고 있으나 他處에 이사를 나갔다가 돌아온 住民들의 本籍地 및 前居住地를 살펴보면 대체로 조사지역에서 가까운 거제도나 한산면의 他里 또는 인접 他里(南海里, 甌南面, 山陽面 등)이고 他道の 경우에는 바다를 격해있는 제주도(북제주가 남제주보다 약간 많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생활환경이 조사지역과 비슷한 漁村인데 그와같은 이동상황은 通婚圈에서 좀더 상세히 언급하겠다. 비교적 沿岸島嶼에 속하는 比珍島와 中間地域島嶼에 해당되는 每勿島 사이에서 뚜렷한 移動率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沿岸地域島嶼인 閑山島의 荷所里에는 다방, 여관, 음식점 등이 있어 도시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갈곶리와 比珍島도 도시에서 밀려온 人波로 困하여 都市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比珍島에는 TV가 34대로서 두집에 한대 꼴로 있고 라디오는 거의 집집마다 모두 가지고 있으며 新聞, 전축도 大衆化되어 있다. 이 섬에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地方 唯一의 해수욕장이 있어 매년 여름철만 되면 서울과 忠武를 비롯한 각 고장에서 피서객이 몰려든다. 住民들이 처음에는 해수욕장 차림의 男女가 몰려 다닌다고 해서 해수욕장 開場을 반대했으나 지금은 계속 人波가 몰려들고 또 관광수입도 꽤 많이 방관하는 편인데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별로 탐탁치 않은 눈치를 보이고 있다.

國島에서는 3대의 TV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外部의 소식을 전해주고는 있지만 住民들의 外部往來는 육지를 거쳐 忠武에 往來하는 客船을 통해 날씨가 좋아야 3일에 한번 가능하다. 더구나 풍량이 있으면 보름이고 한달이고 외부와의 접촉이 끊겨 섬 자체가 하나의 고립된 生活體系를 이루고 있다.

갈매기의 섬인 鴻島에는 4명의 등대수와 그들의 가족 3명이 살고 있는데 補給船이 매달 한번씩 다녀갈 뿐이다.

葛島나 國島와 같은 落島에는 한 섬에 分校場이 하나씩 設立되어 있으나 한 학교(분교장)에 教師 1명이 1학년 부터 6학년 까지 모두 맡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한결같이 교육에 대한 住民들의 無誠意를 타하면서 학생들의 경쟁심이나 독립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住民들의 교육정도를 보아도 國島의 경우 17명의 국민학교 재학생을 제외하면 中卒 1名, 國卒 5名, 國解 3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맹이다. 葛島에서는 총 143名中 국민학교 재학생이 19名이고 高卒 2名, 中卒 1名, 國卒이 5名이다.

葛島 國民學校의 경우 지금까지 1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남학생 2명이 忠武의 中學校로, 國島에서는 30명의 졸업생중 1명이 가까운 欲知中學校로 進學을 했을 뿐이다. 그밖에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어업에 종사하거나 육지로 나가 공장직공이나 가정부로 일한다. 이처럼 靑少年들이 육지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조사당시 落島인 國島에 남아있는 사람

들은 老人과 어린이가 대부분이었다.

通婚圈과 初婚年齡

이 지역의 통혼권과 초혼연령에 관한 實證的인 資料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閉山面事務所에서 比珍島의 外港과 內港 그리고 每勿島에 本籍을 가지고 있는 住民들 중에서 戶籍記載事項을 조사하였다. 比珍島와 每勿島를 표본조사대상지역으로 택한 理由는 閉山面內에서 比珍島가 비교적 交通편이 편하고 육지와의 접촉이 빈번하여 沿岸島嶼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每勿島는 閉山面의 남단에 위치하여 中間地域島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比珍島의 內港에서는 既婚男子 55名과 출가한 女子 38名, 外港에서는 男子 32名, 女子 26名 그리고 每勿島에서는 男子 63名, 女子 29名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男子의 경우에는 本人의 本貫, 姓氏, 出生年度 및 妻의 本貫, 姓氏, 婚姻申告當時의 妻家, 妻의 出生年度, 婚姻申告年度를 調査하고, 女子의 경우에는 本貫, 姓氏, 出生年度, 男便의 姓氏, 婚姻申告年度 등을 調査分析하였다. 위의 3個地域에서 出嫁한 女子들의 通婚圈을 年度別로 보면 <第2表>와 같다.

<第2表> 年度別 女子의 通婚(女出)圈

調査地域	婚姻年度			1978~ 1970	1969~ 1960	1959~ 1950	1949~ 1940	1939~ 1930	1929~ 1920	1919~ 1910	計	%
	通婚地域											
比珍島 內港	同部	落		1	1	—	1	—	—	—	3	7.9
	同面	他里		2	4	—	—	1	—	—	7	18.4
	同郡	他面		5	2	—	—	—	—	—	7	18.4
	巨濟	島		—	—	—	1	—	—	—	1	2.6
	他郡	道		4	4	1	—	—	—	—	9	23.7
	他道	計		9	2	—	—	—	—	—	11	28.9
小計			21	13	1	2	1	—	—	38	100	
比珍島 外港	同部	落		2	—	—	—	—	—	—	2	7.7
	同面	他里		2	9	1	1	—	—	—	13	50.0
	同郡	他面		1	1	—	—	—	—	—	2	7.7
	巨濟	島		2	—	—	—	—	—	—	2	7.7
	他郡	道		2	3	—	—	—	—	—	5	19.2
	他道	計		2	—	—	—	—	—	—	2	7.7
小計			11	13	1	1	—	—	—	26	100	
每勿島	同部	落		6	1	—	—	—	1	—	8	27.6
	同面	他里		—	1	1	1	1	—	—	4	13.8
	同郡	他面		—	—	—	—	—	—	—	—	0
	巨濟	島		1	—	1	1	1	1	1	6	20.7
	他郡	道		7	—	—	—	2	—	—	9	31.0
	他道	計		2	—	—	—	—	—	—	2	6.9
小計			16	2	2	2	4	2	1	29	100	
總計			48	28	4	5	5	2	1	93		

南海岸 巨濟島 隣近 島嶼의 人類學的 調查報告

이 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지리적 고립성과 사회관계의 폐쇄성의 상대적 지...
 있는 島內婚率이 每勿島에서는 比珍島(內港·外港)에서 보다 훨씬 높다. 每勿島의 ...
 한 지역 중에서 他面, 他郡이라는 곳도 인근 島嶼가 많고 이웃한 巨濟 東部面이 대...
 이것은 他郡과 他道로 출가한 여자가 전체의 半이상인 비진도 내항과는 대조를 이룬다...
 출가한 예를 보더라도 每勿에서는 2명이 경북과 전남의 비교적 인접한 道로 갔는데, 比...
 의 경우에는 서울 영등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 남제주 등 11명의 분포가 다양하다. 年...
 보던 최근에 올수록 道內 他郡이라든가 他道 등 外地와의 通婚이 차츰 늘어가는 경향이 있...

出嫁地域을 生態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경남 합천 등 內陸地方의 도시나 농...
 몇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예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 생활환경이 비슷한 海...
 으로 出嫁하고 있다. 比珍 內港에서는 어떤 女子가 생활환경이 다른 전북 김제의 農村에 出...
 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離婚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男子의 경우에도 島內婚率은 每勿島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第3表 參照).

이 지역 男女의 通婚圈에서 흥미있는 사실은 他道와의 혼인 중 제주도와의 혼인이 많다는 것...
 이다. 특히 每勿島의 男子가 他道와 혼인한 3件의 事例은 모두 제주도인데 이것은 每勿島의 男...
 <第3表>

年度別 男子의 通婚(女人)圈

調査地域	婚姻年度		1978~	1969~	1959~	1949~	1939~	1929~	1919~	計	%
	通婚地域		1970	1960	1950	1940	1930	1920	1910		
比珍島內港	同部	落	4	4	1	1	1	1	—	12	21.8
	同面	他理	4	3	3	6	3	1	—	20	36.4
	同郡	他面	1	5	—	—	—	—	—	6	10.9
	巨濟	島	—	2	2	—	—	—	—	4	7.3
	他郡	道	1	3	2	—	—	—	—	6	10.9
	他道	計	2	4	1	—	—	—	—	7	12.7
小計		12	21	9	7	4	2	—	55	100	
比珍島外港	同部	落	—	2	—	—	—	—	1	3	9.4
	同面	他里	2	7	2	3	1	2	—	17	53.1
	同郡	他面	1	2	—	—	1	2	—	6	18.8
	巨濟	島	1	—	—	—	—	—	—	1	3.1
	他郡	道	3	1	—	—	—	1	—	5	15.6
	他道	計	—	—	—	—	—	—	—	—	0
小計		7	12	2	3	2	6	—	32	100	
每勿島(每竹里)	同部	落	5	2	3	3	1	2	—	16	25.4
	同面	他里	1	5	3	3	—	2	1	15	23.4
	同郡	他面	5	3	—	1	1	—	—	10	15.9
	巨濟	道	—	2	1	3	1	1	1	9	14.3
	他郡	道	6	2	—	1	1	—	—	10	15.9
	他道	計	1	2	—	—	—	—	—	3	4.8
小計		18	16	7	11	4	5	2	63	100	
總計		37	49	18	21	10	13	2	150		

이라고 할 수
 女子가出嫁
 부분이다.
 타도에
 珍內港
 度別로
 다.
 촌도
 村
 榮

혼인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每勿島에서는 新 남자의 경우 朱氏가 11名中 7名, 여자의 경우 朱 로 나타나 있다.

地域(예를 들면 1977년에 조사한 賈誼島라든가 1974年 近來할 수록 男女 다같이 晩婚의 경향을 보인다(第4表 表, 每勿島 사이에 초혼연령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 도 이유가 있겠지만 세 지역에 그렇게 확연한 文化的·地理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육지나 다른 섬과 멀리 떨어져 있는 國島의 근래 青年이 外部로 많이 빠져나가 결혼상대를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 姻戚관계가 확증되어 있어서 아주 가가 18~20歲에 早婚하는 경향이 있다.

年度別 男子의 初婚年齡

a : 비진도 외항
 b : 비진도 내항
 c : 매물도

	1978~1970			1969~1960			1959~1950			1949~1940			1939~1930			1929~1920			1919~1910			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計					
14																1				1				1					
15																													
16																				1	1		1	1					
17															1		1				1			1					
18												1	1										1	1					
19					1		1		2	2	1		1			1		1			2	1	2	5					
20			1	1		1	1			1	1	2	4		3	3	1			1		2	1	7	10				
21								1	1		1	2	3										1	3	4				
22					1		1			1	1		2	1	1							2	2	4					
23		1	1	2	1	1	2	1		1	3	3	1	1	1	1	1	1			2	5	3	10					
24		1	1	2	2	1	3	1	1	2		1	1	1	1	2	1	3	4			4	5	5	14				
25	1	1	5	7	1	2	1	4	3	3		2	2									2	6	8	16				
26		1		1	1	1	2	4		1	1			1		1				1	1	2	2	4	8				
27	2	2	2	6	3	2	3	8		1	1					1	1	1	3			6	5	7	18				
28	3		1	4	2	2	4	1	1	1	1		1	1	1	1	1	1	1			3	4	5	12				
29		2	2	4	1	5	1	7	1	1												1	8	3	12				
30		2	3	5	1	2	1	4		1	1	1	1	1	1	1						1	5	6	12				
31		2		2					1	1					1	1	1					1	3	1	5				
32	1			1		1	1															1	1		2				
33			2	2		1	1																	1	2	3			
34					3		3																	3		3			
35이상				1	1	2	4	2	1	3		2	2									1	3	5	9				
計	7	12	18	37	12	21	15	48	2	9	7	18	3	7	11	21	2	4	5	11	6	2	6	14	2	232	55	64	151

表>에서 알 수 있듯이 경작을 할만한 고랑이 많지 않고 더구나 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산비탈을 일구어 고구마·보리 등을 재배하나 그 所出이 島民 2개월치의 식량밖에 되지 않아(國島의 경우) 그들의 생계는 주로 바다에 의존하고 있다. 純農家は 거의 없는 실정이고 염소를 방목하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沿岸地域에서는 경지면적이 넓고 논도 있으며 마늘과 옥수수를 輪作으로 재배하여 生計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한산도 일대의 연안도서지역에서는 굴양식이 盛行되고 있는데 반하여 落島地域에서는 양식이 거의 불가능하여 住民들은 自然產 海藻類 채취에 生計를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特性들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第6表>와 같다.

<第6表>

各 地域別 農漁產物 現況

구 분	도 서 명	農業(밭농사 中心)	漁 業
沿岸地域島嶼	荷所里(比珍島)	마늘, 옥수수 輪作	굴 養殖
中間地域島嶼	蓮花島(比珍島)	마늘 약간, 옥수수	패류 양식 약간(소라, 전복)
落島地域島嶼	葛 島·國 島	고구마, 보리 약간	자연산 미역

이렇게 農事가 잘 되지 않는 落島엔 염소방목이 盛해서 조사당시에 葛島의 산 한 비탈면은 염소방목으로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國島에서는 120마리 가량의 염소를 방목하고 있었는데 귀를 잘라서 소유구별을 하고 여름내 키워서 겨울에 한마리당 3萬원씩 판다고 한다. 進學資金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서 염소를 기르기도 한다. 比珍島에서도 30내지 50마리의 염소를 기르고 있었다.

調査地域들의 漁業으로는 고기잡이와 海藻類採取 및 貝類養殖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閑山島 일대에서는 굴양식業이 盛行되고 있다. 굴양식을 하는때는 大資本이 要求되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이곳 住民들은 주로 굴양식장의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거제군 둔덕면 猪仇里의 굴양식장에서 관찰한 資料와 대한종합식품 연구실에 근무하는 林正鉉氏(30세)의 설명을 중심으로 굴양식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固城, 南海, 昌源의 採苗場에서 8월에 수중채묘를 해와서 약 2週間の 부착(Seed culture)기간을 거쳐 양식장으로 수송하면 9個月간 양식장의 단련床에서 단련을 시킨다. 다음해 5월경에는 選別을 하여 本垂下(약 50坪의 멧목으로부터 길이 9m의 철사에 가리비조개 껍질을 달아 바닷물 속에 늘어뜨려 놓는 것)하고 12월부터 다음 4월까지 채취를 한다. 12月の 첫 수확물이 가장 質이 좋고 값고 비싼데 4~5월에 딴 것은 생식소가 성숙하여 독소가 많아 맛이 떨어진다.

생굴 딴 것은 1kg당 370원(석화조합 고시가격)이며 50坪 멧목 1個當 3,500kg정도 생산되는데 전량 통조림가공에 쓰며 주로 日本에 수출한다.

이처럼 한산도 일대의 沿岸도서지역에서 盛行되는 貝類養殖이 落島地域으로 가면 地貝類 外

에는 不可能하다. 國島에서는 1971년에 高洞·전북 양식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기간은 10년이고 여기에 쓰이는 모골배는 年間 50~60만원이라고 한다. 比珍島에서는 전북·고동·성계 채취가 성행되고 있는데 수익이 좋아서 제주도 해녀들이 이곳에 많이 몰려든다. 그들이 채취한 것은 地先民과 반반씩 가르는데 1978년에는 해녀 1사람이 6개월에 6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패류양식은 蓮花島의 소득증대 중점사업이어서 1977년도에는 소라 1톤당 80만원에 4톤, 전북 톤당 250만원에 0.8톤, 홍합 톤당 15만원에 10톤을 생산하여 총소득액이 670만원이고 호당 평균소득은 4만3천원이었다.

한편 海藻類 특히 미역채취는 落島住民의 주요 수입원이다. 國島와 葛島에는 질이 뛰어난 자연산 미역이 많이 있어 한 노인은 前에 海草를 뜯어 먹고 살던 생각이 난다고 한다. 採取區域은 약 10년전부터 섬 해안선을 細分하고 마을大洞舍에 모여 제비뽑기로 나눈다. 채취구역은 가리기 전에는 섬 전체가 공동구역으로 관리하였으나 미역바위를 나누기 시작한 후부터는 각집에서 자기집 미역바위를 열심히 손질하고 기세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다. 미역채취구역은 3~4년에 한번씩 다시 정한다. 우선 섬둘레를 약 100m씩 나누는데 이 길이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미역이 잘 자라는 곳은 짧고 잘 자라지 않는 곳은 길게 13區域으로(국도의 경우) 나눠 각 구역마다 값을 정한다. 이때 各戶에서 先금을 거두어(갈도는 걸지 않는다고 한다. 국도의 경우 1978년에 50萬원) 부락경비, 학교운영, 이장월급, 동제비용, 客船중업원 임금(3人 9萬원)으로 충당하였다.

미역기세(이스라이 : 미역바위에 붙어있는 잡초, 조개 등을 긁어내는 일)는 씨리(국도) 또는 씨레(갈도, 第2圖)라는 연장으로 음력 9月에서 동지 설달까지 4個月間 은 식구가 매달려 마치고 발매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한다. 인부의 임금은 하루에 3,000원 내지 4,000원 주고 음식과 담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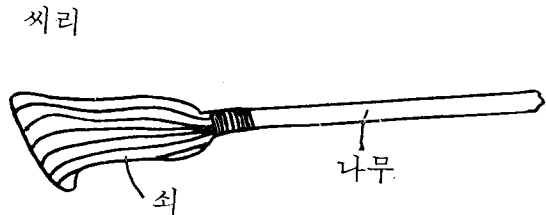


그림 2. 씨 리

미역은 음력 2月 20日부터 5月 20日까지 채취하는데 2월에 쉼어서 큰 것만 따고 4월에 미역채취가 가장 성하다. 따라서 4, 5월은 미역철이라 이 고장에서는 제일 바쁜 때이다.

수확은 1家口當 40단에서 250단까지 다양하나 평균 150단이며 깊은 곳의 미역은 본고장 사람들이 잠수를 할줄 몰라 제주도에서 해녀를 불러다가 채취한다. 이들의 수당은 100단을 캐면 30단을 주는 7:3의 비율이며 한철에 보통 1人當 40~50萬원의 수입을 올리고 간다. 미역은上品이 한단에 4,000원 中下品은 2,000원에서 1,500원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特記할 만한 것은 이들 섬에서는 海女를 전부 밖(제주도)에서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안선이 가파라 住民들이 수영을 배울 곳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 하는데 이들 住民은 海女를 밖에서 불러오으로써 수입의 상당액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住民들은 이 자연산 미역 以外에도 툃나물, 천초, 까사리 등의 해조류를 채취한다. 蓮花島에

서는 1962년부터 어촌계에서 제주해녀 13名을 거주시키면서 미역을 비롯하여 천초, 소라, 전복 등 패류도 공동채취한다.

比珍島에서는 과거에 자연산 미역이 많이 나왔으나 요즘에는 별로 나오지 않고 양식미역으로年間所得이 1,500만원 가량 된다. 比珍島의 水産物 所得中 魚類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아 해조 패류 51%, 고용 및 기타의 36%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다. 앞바다에서 전어망으로 잡는 멸치는 資本이 많이 들어 忠武人(비진도에서 살다가 이주해 간 사람)이 돈을 들여하고 現住民은 고용임금을 받는다. 葛島에서의 멸치잡이는 3~4월부터 8~9월까지 하는데 들망은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여년전에 폐지를 했고 예전에는 集魚燈으로 가스를 썼으나 現在는 전기를 쓴다. 잡힌 멸치는 생것을 벌에 말리기도 하고 젖도 약간 담근다.

조사지역의 漁船保有現況은 <第7表>와 같으며 그중 뱃마는 거의 집집마다 있는데 빨락, 망성어, 광어, 도미 등을 잡고 있다.

國島의 경우 자연조건은 매우 좋으나 시설의 미비로 資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事例가 될 듯 하다. 국도 주변은 참치, 빨락어, 돔 등의 황금어장으로 各地에서 배가 몰려와 마치 큰 항구와 같다. 그러나 정작 국도 주민은 배를 정착시킬 선착장이 없어 이를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다. 선착장공사를 군당국에 여러번 건의도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군수와 교육장이 순시차 국도에 들렀다가 선착장이 없어 물에 빠진 뒤로 당장 작은 선착장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도 태풍이 있거나 파도가 거칠면 이 섬에 동력선을 댈 수가 없어 현재 국도에는 動力船이 한 척도 없기 때문에 이곳 住民은 겨우 뱃마(전마선)를 타고 미역을 따면서 가끔 낚시질을 할 뿐이다. 음력 6월부터 12月까지 이 근처는 참치의 어장이어서 여러 곳의 배가 와서 조업을 하며 어지간히 많이 잡으면 滿船旗를 꽂고 갱가리를 치면서 船員들이 흥겹게 귀향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한산도에서는 돌도미와 부유치어를 양어한다.

1年間に 걸친 노동주기를 農業과 漁業으로 區分하여 蓮花島를 中心으로 간략하게 추려보면 <第8表>와 같다.

마늘은 한산면 일대의 섬에서 매우 盛하게 재배되고 品質도 좋기로 유명하다. 이 作物은 風害에 대체로 強하여 옥수수와 輪작을 할 수 있다. 比珍島에서는 마늘수입이 전체 농업소득의 39.9%나 차지하여 그 地域의 중요한 經濟作物로 간주된다. 여기서 생산되는 마늘은 부산이나 忠武에서 商人들이 들어와 대량으로 購入하여 船便으로 搬

<第7表> 各島嶼의 漁船 保有 現況

구 분		도서명			
		比珍島	蓮花島	葛島	國島
漁船 (척)	動力船	29	20	1	0
	無動力船	37	25	10	16

<第8表> 年間 勞動周期

月別	農 業	漁 業
1		빨락어(새우 1본조)
2	보리밭 애벌매기	"
3		"
4	마늘 캐기	돔 (1본조 새우)
5	보리 추수·타작, 옥수수 심기	"
6	고구마씩 심기	"
7		광 어(광치·갈치)
8	마늘 심기	"
9		삼 치
10	고구마 캐기	"
11	보리 파종	"
12		빨락어

출해 나간다. 沿岸島嶼地域에서는 그밖에도 파, 소채 등의 경제작물과 고구마, 보리 등을 심는다.

國島나 葛島와 같은 落島에서는 風害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늘 대신에 고구마와 보리를 산비탈에 심고 있다. 葛島에는 흙이 무성하게 자라서 흙뿌리를 캐어다가 전분을 내어 먹기도 한다. “취섬” 또는 葛島라는 명칭도 이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山菜로는 더덕, 쑥, 고사리, 원추리, 뽕뚝 등이 있다. 농기구로는 쟁이, 삽, 훔칭이 등이 있으며, 논이 없고 밭이 있다 해도 전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蓄力을 이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信仰 및 儀禮生活

巨濟島 隣近 島嶼地方에는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고등종교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傳來하는 洞祭가 섬마을을 單位로 해서 주기적으로 거행된다. 여기에서 蓮花島와 葛島를 중심으로 洞祭를 살펴보기로 하자.

蓮花島의 경우 매년 음력 설달 그믐날 洞祭를 시작해서 다음 날인 정월 초하루 아침(7시경)까지 지내는데 갈도에서는 3年마다 한번씩 지내며 定한 날짜가 따로 없고 봄철(음 3,4月)에 날 봐서 좋은 날(비 안오고 바람 없는 날)에 지내는 점이 다르다. 만약 굶은 일이 생기면 그 해에는 洞祭를 지내지 않고 다음 해로 미룬다.

이 두 섬에서는 모두 祭官을 동네에서 지명하거나 선출하고 있으며 祭官의 資格條件으로는 집안에 産故가 없고 喪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가 친척중에서도 이러한 有故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일단 지명되거나 선출된 제관 내외는 한이래동안 일체의 잡된 行爲를 삼가고 몸을 깨끗이 하며 집의 出入口에 작대기를 꽂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표시를 해둔다. 이후 장보러 갈 때나 음식장만할 때 또는 제당에 올라갈 때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야 하며 말도 해서는 안되고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되어있다.

蓮花島에서는 洞祭때 祭官 이외에 스님을 불러 오기도 하는데 1977년에는 육지도에서 스님 두사람을 불러다가 마을사람들의 無病과 無事故·豐漁를 기원토록 하고 수당으로 6만원 가량 주었다. 제관은 강위득(55), 박정순(52) 내외였으며 祭費用으로 3萬원을 동네에서 받았다. 갈도에서는 총무, 삼천포, 남해 등지에서 대모(大舞, 大巫) 7,8명을 6萬원에 데려다가 78年 3月에 洞祭를 지냈다.

洞祭 지내는 과정을 언화리의 1977년 제관이었던 박정순(52)씨의 면담을 통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설달 그믐날 목욕제계하고 아침에 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뿔 나무 등을 준비해 놓는다. 저녁 무렵에 집에서 장만한 음식, 제주, 떡 등을 깨끗한 곳에 담아가지고 오직 동네를 편케 하겠다는 一念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당에 올라간다. 당에 올라갈 때 아무도 보지 않아야 한다. 당문

앞에서 기침을 서너번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왔다는 表示로 하는 것이다. 밥은 당에서 짓는다. 젓상에 올라가는 음식으로는 미역,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채소와 사과, 배, 삼지(강정), 삼실개, 대추, 밤 등 온갖 것, 조푸(두부), 밥 그리고 해물로는 오직 명태만 쓰고 肉類는 올려 놓지 않는다.

염불은 스님이 하고 제관은 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동네사람들의 안녕을 빈다. 집에 와서 잠시 쉰다음 아침 5시경(즉 정월 초하루) 아래당에 내려가서 돼지머리등을 차려놓고 다음 일년을 잘 지내게 해주십사 빌고 각 가정에서도 가정제를 지낸다. 아침 7시 쯤에는 바닷가에 젓상을 차려놓고 용왕님께 염불한다.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팽과리, 징 등으로 농악을 연주하며 하루 종일 온 동네가 같이 어울려 논다. 그 뒤에 靑年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술을 청하여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葛島에서는 洞祭를 지내고 쥐긋, 뱀긋을 지내는 것이 特異하다. 이것은 갈도에서 쥐와 뱀이 많아서 농사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관은 뽑힌 날부터 계속 공을 들이다가 당일 저녁 8시쯤 떡, 나물 등을 차려 가지고 당으로 올라가 上堂에서 밥을 짓고 밤 12시쯤 제관만 참여하여 제사를 지낸다. 제관 내외가 8,9번 절을 하며 우리나라 통일 잘 되고 고기 잘 잡히고 해초도 잘되고 배사고 없이 집집마다 무고하게 해달라고 祝願을 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제관은 축원이외는 말을 일체 하지 않고 병어리 흥내로 意思를 소통한다. 제가 끝나면 제수를 가지고 집에 내려와 아침에 동리 어른들과 나눠 먹는다. 제관은 제사이후 3日 주야동안 음식도 대소변도 하지 못한다.

제사 다음날 동리사람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下堂에서 하룻밤 별신굿을 지낸다. 이 작은당의 별신굿에는 제관(제주)이 참가하지 않고 무당이 행사를 주도하는데 이때 장고, 북, 징 등이 동원된다.

洞祭는 3일간 하는데 둘째, 셋째날은 龍王祭로서 마을사람이 전부 모여서 한다. 한 집마다 10되씩 걷은 탁주를 어울려 마시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洞祭費用은 1977년에 20萬원 들었는데 매호당 똑같이 얼마씩 걷어 부담하며 제관에게 주는 수당으로는 수물전에 놓였던 그릇을 제관이 가져가는 것 뿐이라는 것 또한 蓮花島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洞祭는 落島地域과 蓮花島 등에서 盛하고 沿岸島嶼로 오면 약화된다. 이것은 물론 落島地域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陸地의 외래文化와 접촉이 비교적 적고 洞祭의 의미가 그들의 生活(고기잡이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國島에서는 부산 서면에 本部를 둔 태극도가 76年 3월에 교회를 設立해 약 10名 가량의 信徒를 갖고 있다. 강명도(58)를 중심으로 하는 이 10명은 모두 外地에서 移住해온 사람들이며 매달 한번 지내는 이들의 祭祀는 他人에게 공개하기를 극히 꺼리는 行事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국도의 한쪽 구석에 박혀 주민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다.

提 言

自然은 人間이 그 속에서 生活하고 또 그것에 依存하며 利用하는 삶의 터전이므로 效果的인 自然保護는 항상 人間의 生活條件과의 밀접한 聯關性을 가지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國島 住民은 섬 부근에 좋은 漁場을 갖고 있으면서도 船着場이 없기 때문에 넓은 바다의 많은 資源보다도 좁은 섬의 제한된 資源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것은 葛島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의 염소방목과 뽕감채취는 섬의 草木을 점점 없애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리라 보아진다.

이들 住民들(특히 落島인 國島, 葛島)에게 소득수준을 높이는 事業, 이를테면 선착장 시설이라든가 漁船의 확보와 漁撈裝備 및 技術의 改善 등을 마련해 줌으로써 住民의 눈을 좁은 섬 자체에 限定시키지 않고 보다 넓은 바다로 돌리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인 自然保護의 成果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Summary

This report is based on the data gathered during our scientific expedition to the isolated islands off Geoje-do island on the South Coast of Korean Peninsula from 18 to 23 in July, 1978. Being on a brief voyage by a police patrolship, we the members of the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team of the expedition observed all ten islands which administratively belong to Hansan-myeon and Yokji-myeon of Tongyeong-gun, and to Dongbu-myeon of Geoje-gun, South Gyeongsang Provinc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the islands we collected genealogical records and legends related to the history of settlement. Most of the data on behavioral patterns were obtained through observation and interview. To obtain quantitative data, we used various official records of the census registration, documents, and statistics.

Many written documents reveal the remains of prehistoric and historic times of Korea discovered on the above islands. According to the legendary data we gathered, the first settlers of Bijindo island settled down there on the island four hundred years ago. Genealogical data, however, indicate that the history of the settlement of the island goes back no farther than one hundred years.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on Bijindo in 1978 was 174 and the total population was 975 people of which 490 were male and 485 were femal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cord of the census registration. In this report we analyzed the composition and migration of the population residing

on the islands surveyed. The results show that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Bijindo population were native islanders. Available marriage network data indicate that of the 64 women born on a coastal island (Bijindo), 5 were married within the island territory. While on an isolated island (Maemuldo) 8 of 29 native women were married within the island territory.

The main subsistence activities of the islanders are farming, seaweed collecting, and fishing. On the small pieces of slope land they intensively grow various mixed crops such as barley, corn, sweet potatoes, and vegetables for home consumption and garlic for sale. While around the coastal islands there are many oyster culturing farms, there are many natural seaweed collecting grounds around the isolated islands. The most common fishing methods are angling with a hook and line, long line fishing, and dragnet fishing near the shore of the islands. For these types of fishing, all that was required were small wooden boats with a sail and oars and a two-to-four-man crew. Therefore, these fish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the related fishermen from a single household or by two-to-three households working cooperately.

The most popular belief and ritual system which involves the whole islanders is that of *Tongje* (a ceremony for the village god), which is performed on the last day of the Year at *Tang* (a shrine for the village god). In theory all the islanders participate in *Tongje*, but the actual ceremony is carried out by the special functionaries of the rite who are nominated or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ritual cleanliness. When preparations are made for the ceremony childbirth and death within the village are tabooed because of their uncleanness.

參 考 文 獻

金元龍·任孝宰; 1968, 南海島嶼考古學,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東亞文化研究所.
內務部; 1973, 島嶼誌.

李海英·韓相福; 1974, “白翎島의 社會學 및 人類學的 調查報告”, 白翎島·大靑島 學術調查報告, 서울新聞社, pp. 337-388

韓相福·全京洙; 1978, “格列飛列島의 人類學的 調查報告” 格列飛列島 및 隣近島嶼綜合學術調查報告書, 서울 韓國自然保存協會, pp. 131-155

사하였다.

이 資料에 따르면 그 섬에서 出生한 토박이가 比珍 內港에서는 82%, 外港에서는 87%이며 매물 당급에서는 75% 대항에서는 83%였으며 가왕도에서는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지역 이외에 본적을 두었거나, 조사지역에 본적을 갖고 있으나 他處에 이사를 나갔다가 돌아온 住民들의 本籍地 및 前居住地를 살펴보면 대체로 조사지역에서 가까운 거제도나 한산면의 他里 또는 인접 他里(南海里, 就南面, 山陽面 등)이고 他道の 경우에는 바다를 격해있는 제주도(북제주가 남제주보다 약간 많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생활환경이 조사지역과 비슷한 漁村인데 그와같은 이동상황은 通婚圈에서 좀더 상세히 언급하겠다. 비교적 沿岸島嶼에 속하는 比珍島와 中間地域島嶼에 해당되는 每勿島 사이에서 뚜렷한 移動率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沿岸地域島嶼인 閑山島의 荷所里에는 다방, 여관, 음식점 등이 있어 도시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갈곶리와 比珍島도 도시에서 밀려온 人波로 因하여 都市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比珍島에는 TV가 34대로서 두집에 한대 꼴로 있고 라디오는 거의 집집마다 모두 가지고 있으며 新聞, 전축도 大衆化되어 있다. 이 섬에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地方 唯一의 해수욕장이 있어 매년 여름철만 되면 서울과 忠武를 비롯한 각 고장에서 피서객이 물려든다. 住民들이 처음에는 해수욕장 차림의 男女가 물려 다닌다고 해서 해수욕장 開場을 반대했으나 지금은 계속 人波가 물려들고 또 관광수입도 꽤찮아 방관하는 편인데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별로 탐탁치 않은 눈치를 보이고 있다.

國島에서는 3대의 TV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外部의 소식을 전해주고는 있지만 住民들의 外部往來는 육지를 거쳐 忠武에 往來하는 客船을 통해 날씨가 좋아야 3일에 한번 가능하다. 더구나 풍랑이 있으면 보름이고 한달이고 외부와의 접촉이 끊겨 섬 자체가 하나의 고립된 生活體系를 이루고 있다.

갈매기의 섬인 鴻島에는 4명의 등대수와 그들의 가족 3명이 살고 있는데 補給船이 매달 한번씩 다녀갈 뿐이다.

葛島나 國島와 같은 落島에는 한 섬에 分校場이 하나씩 設立되어 있으나 한 학교(분교장)에 教師 1명이 1학년 부터 6학년 까지 모두 맡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한결같이 교육에 대한 住民들의 無誠意를 타하면서 학생들의 경쟁심이나 독립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住民들의 교육정도를 보아도 國島의 경우 17명의 국민학교 재학생을 제외하면 中卒 1名, 國卒 5名, 國解 3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맹이다. 葛島에서는 총 143名中 국민학교 재학생이 19名이고 高卒 2名, 中卒 1名, 國卒이 5名이다.

葛島 國民學校의 경우 지금까지 1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남학생 2명이 忠武의 中學校로, 國島에서는 30명의 졸업생중 1명이 가까운 欲知中學校로 進學을 했을 뿐이다. 그밖에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어업에 종사하거나 육지로 나가 공장직공이나 가정부로 일한다. 이처럼 靑少年들이 육지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조사당시 落島인 國島에 남아있는 사람

들은 老人과 어린이가 대부분이었다.

通婚圈과 初婚年齡

이 지역의 통혼권과 초혼연령에 관한 實證的인 資料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閑山面事務所에서 比珍島의 外港과 內港 그리고 每勿島에 本籍을 가지고 있는 住民들 중에서 戶籍記載事項을 조사하였다. 比珍島와 每勿島를 표본조사대상지역으로 택한 理由는 閑山面內에서 比珍島가 비교적 交通편이 편하고 육지와와의 접촉이 빈번하여 沿岸島嶼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每勿島는 閑山面의 남단에 위치하여 中間地域島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比珍島의 內港에서는 既婚男子 55名과 출가한 女子 38名, 外港에서는 男子 32名, 女子 26名 그리고 每勿島에서는 男子 63名, 女子 29名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男子의 경우에는 本人의 本貫, 姓氏, 出生年度 및 妻의 本貫, 姓氏, 婚姻申告當時의 妻家, 妻의 出生年度, 婚姻申告年度를 調査하고, 女子의 경우에는 本貫, 姓氏, 出生年度, 男便의 姓氏, 婚姻申告年度 등을 調査分析하였다. 위의 3個地域에서 出嫁한 女子들의 通婚圈을 年度別로 보면 <第2表>와 같다.

〈第2表〉 年度別 女子의 通婚(女出)圈

調査地域	通婚地域	婚姻年度							計	%
		1978~ 1970	1969~ 1960	1959~ 1950	1949~ 1940	1939~ 1930	1929~ 1920	1919~ 1910		
比珍島 內港	同部 落	1	1	—	1	—	—	—	3	7.9
	同面 他里	2	4	—	—	1	—	—	7	18.4
	同郡 他面	5	2	—	—	—	—	—	7	18.4
	巨濟 島	—	—	—	1	—	—	—	1	2.6
	他郡 道	4	4	1	—	—	—	—	9	23.7
	他小 計	9	2	—	—	—	—	—	11	28.9
	小計	21	13	1	2	1	—	—	38	100
比珍島 外港	同部 落	2	—	—	—	—	—	—	2	7.7
	同面 他里	2	9	1	1	—	—	—	13	50.0
	同郡 他面	1	1	—	—	—	—	—	2	7.7
	巨濟 島	2	—	—	—	—	—	—	2	7.7
	他郡 道	2	3	—	—	—	—	—	5	19.2
	他小 計	2	—	—	—	—	—	—	2	7.7
	小計	11	13	1	1	—	—	—	26	100
每勿島	同部 落	6	1	—	—	—	1	—	8	27.6
	同面 他里	—	1	1	1	1	—	—	4	13.8
	同郡 他面	—	—	—	—	—	—	—	—	0
	巨濟 島	1	—	1	1	1	1	1	6	20.7
	他郡 道	7	—	—	—	2	—	—	9	31.0
	他小 計	2	—	—	—	—	—	—	2	6.9
	小計	16	2	2	2	4	2	1	29	100
	總計	48	28	4	5	5	2	1	93	

에는 不可能하다. 國島에서는 1971년에 고동·진북 양식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기간은 10년이고 여기에 쓰이는 모골배는 年間 50~60만원이라고 한다. 比珍島에서는 진북·고동·성게 채취가 성행되고 있는데 수익이 좋아서 제주도 해녀들이 이곳에 많이 몰려든다. 그들이 채취한 것은 地先民과 반반씩 가르는데 1978년에는 해녀 1사람이 6개월에 6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패류양식은 蓮花島의 소득증대 중점사업이어서 1977년도에는 소라 1톤당 80만원에 4톤, 진북 톤당 250만원에 0.8톤, 홍합 톤당 15만원에 10톤을 생산하여 총소득액이 670만원이고 호당 평균소득은 4만3천원이었다.

한편 海藻類 특히 미역채취는 落島住民의 주요 수입원이다. 國島와 葛島에는 질이 뛰어난 자연산 미역이 많이 있어 한 노인은 前에 海草를 뜯어 먹고 살던 생각이 난다고 한다. 採取區域은 약 10년전부터 섬 海안선을 細分하고 마을大洞窟에 모여 채비뽑기로 나눈다. 채취구역을 가리기 전에는 섬 전체가 공동구역으로 관리하였으나 미역바위를 나누기 시작한 후부터는 각 집에서 자기집 미역바위를 열심히 손질하고 기세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다. 미역채취구역은 3~4년에 한번씩 다시 정한다. 우선 섬둘레를 약 100m씩 나누는데 이 길이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미역이 잘 자라는 곳은 짧고 잘 자라지 않는 곳은 길게 13區域으로(국도의 경우) 나눠 각 구역마다 값을 정한다. 이때 各戶에서 先金을 거두어(갈도는 걸지 않는다고 한다. 국도의 경우 1978년에 50萬원) 부락경비, 학교운영, 이장월급, 동제비용, 客船종업원 임금(3人 9萬원)으로 충당하였다.

미역기세(이스라이 : 미역바위에 붙어있는 잡초, 조개 등을 긁어내는 일)는 씨리(국도) 또는 씨례(갈도, 第2圖)라는 연장으로 음력 9월에서 동지 설달까지 4個月間 은 식구가 매달려 마치 밭매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한다. 인부의 임금은 하루에 3,000원 내지 4,000원 주고 음식과 담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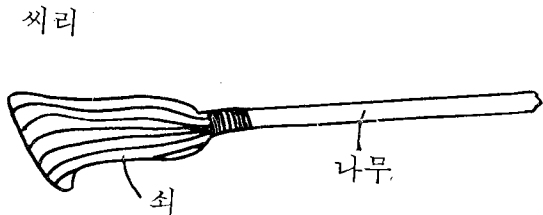


그림 2. 씨 리

미역은 음력 2月 20일부터 5月 20일까지 채취하는데 2월에 속아서 큰 것만 따고 4월에 미역 채취가 가장 성하다. 따라서 4, 5월은 미역철이라 이 고장에서는 제일 바쁜 때이다.

수확은 1家口當 40단에서 250단까지 다양하나 평균 150단이며 깊은 곳의 미역은 본고장 사람들이 잠수를 할줄 몰라 제주도에서 해녀를 불러다가 채취한다. 이들의 수당은 100단을 캐면 30단을 주는 7:3의 비율이며 한철에 보통 1人當 40~50萬원의 수입을 올리고 간다. 미역은 上品이 한단에 4,000원 中下品은 2,000원에서 1,500원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特記할 만한 것은 이들 섬에서는 海女를 전부 밖(제주도)에서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海안선이 가파라 住民들이 수영을 배울 곳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 하는데 이들 住民은 海女를 밖에서 불러오므로써 수입의 상당액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住民들은 이 자연산 미역 以外에도 툃나물, 천초, 까사리 등의 해조류를 채취한다. 蓮花島에

서는 1962년부터 어촌계에서 제주해녀 13명을 거주시키면서 미역을 비롯하여 천초, 소라, 전복 등 패류도 공동채취한다.

比珍島에서는 과거에 자연산 미역이 많이 나왔으나 요즘에는 별로 나오지 않고 양식미역으로年間所得이 1,500만원 가량 된다. 比珍島의 水産物 所得中 魚類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아 해조 패류 51%, 고용 및 기타의 36%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다. 앞바다에서 건어망으로 잡는 멸치는 資本이 많이 들어 忠武人(비진도에서 살다가 이주해 간 사람)이 돈을 들여하고 現住民은 고용임금을 받는다. 葛島에서의 멸치잡이는 3~4월부터 8~9월까지 하는데 들망은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여년전에 폐지를 했고 예전에는 集魚燈으로 가스를 썼으나 現在는 전기를 쓴다. 잡힌 멸치는 생것을 벌에 말리기도 하고 겻도 약간 담근다.

조사지역의 漁船保有現況은 <第7表>와 같으며 그중 뗏마는 거의 집집마다 있는데 빨락, 망성어, 광어, 도미 등을 잡고 있다.

國島의 경우 자연조건은 매우 좋으나 시설의 미비로 資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

는 대표적인 事例가 될 듯 하다. 국도 주변은 참치, 빨락어, 돔 등의 황금어장으로各地에서 배가 몰려와 마치 큰 항구와 같다. 그러나 정작 국도 주민은 배를 정착시킬 선착장이 없어 이를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다. 선착장공사를 군당국에 여러번 건의도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군수와 교육장이 순시차 국도에 들렀다가 선착장이 없어 물에 빠진 뒤로 당장 작은 선착장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도 태풍이 있거나 파도가 거칠면 이 섬에 동력선을 댈 수가 없어 현재 국도에는 動力船이 한 척도 없기 때문에 이곳 住民은 겨우 뗏마(전마선)를 타고 미역을 따면서 가끔 낚시질을 할 뿐이다. 음력 6월부터 12월까지 이 근처는 참치의 어장이어서 여러 곳의 배가 와서 조업을 하며 어지간히 많이 잡으면 滿船旗를 꽂고 팽가리를 치면서 船員들이 흥겹게 귀향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한산도에서는 돌도미와 부유치어를 양어한다.

1年間に 걸친 노동주기를 農業과 漁業으로 區分하여 蓮花島를 中心으로 간략하게 추려보면 <第8表>와 같다.

마늘은 한산면 일대의 섬에서 매우 盛하게 재배되고 品質도 좋기로 유명하다. 이 作物은 風害에 대체로 強하여 옥수수와 輪작을 할 수 있다. 比珍島에서는 마늘수입이 전체 농업소득의 39.9%나 차지하여 그 地域의 중요한 經濟作物로 간주된다. 여기서 생산되는 마늘은 부산이나 忠武에서 商人들이 들어와 대량으로 購入하여 船便으로 搬

<第7表> 各島嶼의 漁船 保有 現況

구분		도서명			
		比珍島	蓮花島	葛島	國島
漁船(척)	動力船	29	20	1	0
	無動力船	37	25	10	16

<第8表> 年間 勞動周期

月別	農 業	漁 業
1		빨락어(새우 1본조)
2	보리밭 애벌매기	"
3		"
4	마늘 캐기	돔 (1본조 새우)
5	보리 추수·타작, 옥수수 심기	"
6	고구마밭 심기	"
7		광 어(공치·갈치)
8	마늘 심기	"
9		삼 치
10	고구마 캐기	"
11	보리 파종	"
12		빨락어

이 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지리적 고립성과 사회관계의 폐쇄성의 상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島內婚率이 每勿島에서는 比珍島(內港·外港)에서 보다 훨씬 높다. 每勿島의 女子가 出嫁한 지역 중에서 他面, 他郡이라는 곳도 인근 島嶼가 많고 이웃한 巨濟 東部面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他郡과 他道로 출가한 여자가 전체의 半이상인 비진도 내항과는 대조를 이룬다. 타도에 출가한 예를 보더라도 每勿에서는 2명이 경북과 전남의 비교적 인접한 道로 갔는데, 比珍 內港의 경우에는 서울 영등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 남제주 등 11명의 분포가 다양하다. 年度別로 보면 최근에 올수록 道內 他郡이라든가 他道 등 外地와의 通婚이 차츰 늘어가는 경향이 있다.

出嫁地域을 生態的 觀點에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경남 합천 등 內陸地方의 도시나 농촌도 몇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例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 생활환경이 비슷한 漁村으로 出嫁하고 있다. 比珍 內港에서는 어떤 女子가 생활환경이 다른 전북 김제의 農村에 出嫁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離婚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男子의 경우에도 島內婚率은 每勿島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第3表 參照).

이 지역 男女의 通婚圈에서 흥미있는 사실은 他道와의 혼인 중 제주도와의 혼인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每勿島의 男子가 他道와 혼인한 3件의 事例는 모두 제주도인데 이것은 每勿島의 男

〈第3表〉 年度別 男子의 通婚(女人)圈

調查地域	通婚地域	婚姻年度							計	%
		1978~ 1970	1969~ 1960	1959~ 1950	1949~ 1940	1939~ 1930	1929~ 1920	1919~ 1910		
比珍島內港	同部落	4	4	1	1	1	1	—	12	21.8
	同面他理	4	3	3	6	3	1	—	20	36.4
	同郡他面	1	5	—	—	—	—	—	6	10.9
	巨濟島	—	2	2	—	—	—	—	4	7.3
	他郡道	1	3	2	—	—	—	—	6	10.9
	他道計	2	4	1	—	—	—	—	7	12.7
	小計	12	21	9	7	4	2	—	55	100
比珍島外港	同部落	—	2	—	—	—	—	1	3	9.4
	同面他理	2	7	2	3	1	2	—	17	53.1
	同郡他面	1	2	—	—	1	2	—	6	18.8
	巨濟島	1	—	—	—	—	—	—	1	3.1
	他郡道	3	1	—	—	—	1	—	5	15.6
	他道計	—	—	—	—	—	—	—	—	0
	小計	7	12	2	3	2	6	—	32	100
每勿島(每竹里)	同部落	5	2	3	3	1	2	—	16	25.4
	同面他理	1	5	3	3	—	2	1	15	23.4
	同郡他面	5	3	—	1	1	—	—	10	15.9
	巨濟島	—	2	1	3	1	1	1	9	14.3
	他郡道	6	2	—	1	1	—	—	10	15.9
	他道計	1	2	—	—	—	—	—	3	4.8
	小計	18	16	7	11	4	5	2	63	100
總計		37	49	18	21	10	13	2	150	

자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제주도 漁村의 女子와 혼인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每勿島에서는 新安 朱氏와 金海 金氏가 혼인한 사례가 많은데 남자의 경우 朱氏가 11名中 7名, 여자의 경우 朱氏가 6名中 3名이 金海 金氏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지역 주민의 初婚年齡은 다른 落島地域(예를 들면 1977년에 조사한 賈誼島라든가 1974년에 조사한 白翎島)에서와같이 時代가 近來할 수록 男女 다같이 晩婚의 경향을 보인다(第4表 參照). 그러나 比珍 外港, 比珍 內港, 每勿島 사이에 초혼연령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샘플숫자가 작은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세 지역에 그렇게 확연한 文化的·地理的 구별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육지나 다른 섬과 멀리 떨어져 있는 國島의 경우는 좀 다르다. 國島엔 근래 靑年이 外部로 많이 빠져나가 결혼상대를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고 또 島內婚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 姻戚관계가 확증되어 있어서 아주 가까운 姻戚이 아니면 대개 18~20歲에 早婚하는 경향이 있다.

<第4表>

年度別 男子의 初婚年齡

a: 비진도 외항
b: 비진도 내항
c: 매물도

초혼 연령	1978~1970			1969~1960			1959~1950			1949~1940			1939~1930			1929~1920			1919~1910			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計							
13이하																															
14																1							1	1							
15																															
16																				1	1		1	1							
17																1						1		1							
18											1	1											1	1							
19					1		1		2	2	1		1			1						2	1	2	5						
20		1		1		1		1			1	1	2	4		3	3	1				2	1	7	10						
21									1	1		1	2	3									1	3	4						
22					1		1				1	1		2	1	1							2	2	4						
23		1	1	2	1	1	2	1		1	3		3	1	1		1		1			2	5	3	10						
24		1	1	2	2	1	3	1	1	2		1	1	1	1	2	1	3		4			4	5	5	14					
25	1	1	5	7	1	2	1	4	3		3		2	2									2	6	8	16					
26		1		1	1	1	2	4		1	1			1		1				1	1		2	2	4	8					
27	2	2	2	6	3	2	3	8		1	1					1	1	1		3			6	5	7	18					
28	3		1	4		2	2	4	1		1	1		1		1		1		1			3	4	5	12					
29		2	2	4	1	5	1	7	1		1												1	8	3	12					
30		2	3	5	1	2	1	4		1	1		1	1	1		1						1	5	6	12					
31		2		2					1		1				1	1	1			1			1	3	1	5					
32	1			1		1		1															1		1	2					
33			2	2		1		1																1	2	3					
34					3		3																	3		3					
35이상				1	1	2		4	2	1		3		2	2								1	3	5	9					
計	7	12	18	37	12	21	15	48	2	9	7	18	3	7	11	21	2	4	5	11	6	2	6	14		2	23	22	55	64	151

年度別 女子의 初婚年齡

a: 비진도 외항
b: 비진도 내항
c: 매물도

초혼 년령	1978~1970				1969~1960				1959~1950				1949~1940				1939~1930				1929~1920				1919~1910				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a	b	c	小計
13이하	1			1									1			1														2	1	3
14																																
15																																
16																																
17													1			1													1		1	
18		2		2											1				1										3		3	
19			1	1	1			2															1		1	1	1	1	2		4	
20	3			3	1			1	1			1		1						1		1					5	2		7		
21	1	6	5	12	3	3		6				1	1													4	9	6		19		
22	4	2		6	4	3		7		1	1															8	3	3		14		
23	2	4		6	1	1	1	3		1		1	1		1				1		1					4	6	2		12		
24	1	6	1	8		3		3		1	1															1	9	2		12		
25		1	3	4	2	1		3																		2	2	3		7		
26	1		1	2		1		1																		1	1	1		3		
27		1		1																		1		1			1	1		2		
28			1	1		1	1	2											1		1						1	3		4		
29																																
30						1		1																			1			1		
31																																
32																																
33																																
34																														1	1	
35이상			3	3																									3		3	
計	12	21	17	50	12	15	2	29	1	1	2	4	1	2	2	5	1	4	5		2	2		1	1	26	40	30		96		

經濟生活

生態的 條件에 따라 沿岸地域과 落島地域 및 그 中間地域은 自然·地理的 環境이 相異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경제체제도 서로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다. 國島·葛島 등의 落島들은 <第5

<第5表>

各 島嶼의 經濟 概況

	家 口				경 지 면 적(ha)				년도별 소득현황(戶當) 단위: 千원			
	計	漁家	農漁兼家	非農家	계	논	밭	호당면적	74	75	76	77
比 珍 島 外 港	81	8	70	3	19.8	2.2	17.6	0.25	987	1,160	1,363	1,503
蓮 花 島	154	15	106	33	58	0	58	0.4	390	500	1,246	1,500
葛 島	27	—	26	1	8.6	0	8.6	0.3	—	—	—	—
國 島	16	14	2	0	6.5	0	6.5	0.4	—	—	—	—

表>에서 알 수 있듯이 경작을 할만한 고랑이 많지 않고 더구나 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산비탈을 일구어 고구마·보리 등을 재배하나 그 所出이 島民 2개월치의 식량밖에 되지않아(國島의 경우) 그들의 생계는 주로 바다에 의존하고 있다. 純農家は 거의 없는 실정이고 염소를 방목하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沿岸地域에서는 경지면적이 넓고 논도 있으며 마늘과 옥수수를 輪作으로 재배하여 生計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한산도 일대의 연안도서지역에서는 굴양식이 盛行되고 있는데 반하여 落島地域에서는 양식이 거의 불가능하여 住民들은 自然產 海藻類 채취에 生計를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特性들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第6表>와 같다.

<第6表>

各 地域別 農漁產物 現況

구 분	도 서 명	農業(밭농사 中心)	漁 業
沿岸地域島嶼	荷所里(比珍島)	마늘, 옥수수 輪作	굴 養殖
中間地域島嶼	蓮花島(比珍島)	마늘 약간, 옥수수	패류 양식 약간(소라, 진북)
落島地域島嶼	葛 島·國 島	고구마, 보리 약간	자연산 미역

이렇게 農事가 잘 되지 않는 落島엔 염소방목이 盛해서 조사당시에 葛島의 산 한 비탈면은 염소방목으로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國島에서는 120마리 가량의 염소를 방목하고 있었는데 귀를 잘라서 소유구별을 하고 여름내 키워서 겨울에 한마리당 3萬원씩 판다고 한다. 進學資金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서 염소를 기르기도 한다. 比珍島에서도 30내지 50마리의 염소를 기르고 있었다.

調查地域들의 漁業으로는 고기잡이와 海藻類採取 및 貝類養殖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閉山島 일대에서는 굴養殖業이 盛行되고 있다. 굴양식을 하는데는 大資本이 要求되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이곳 住民들은 주로 굴양식장의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거제군 둔덕면 猪仇里의 굴양식장에서 관찰한 資料와 대한종합식품 연구실에 근무하는 林正鉉氏(30세)의 설명을 중심으로 굴양식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固城, 南海, 昌源의 採苗場에서 8월에 수중채묘를 해와서 약 2週間的 부착(Seed culture)기간을 거쳐 양식장으로 수송하면 9個月간 양식장의 단련床에서 단련을 시킨다. 다음해 5월경에는 選別을 하여 本垂下(약 50坪의 멧목으로부터 길이 9m의 철사에 가리비조개 껍질을 달아 바닷물 속에 늘어뜨려 놓는 것)하고 12월부터 다음 4월까지 채취를 한다. 12月の 첫 수확물이 가장 質이 좋고 값고 비싼데 4~5월에 탄 것은 생식소가 성숙하여 독소가 많아 맛이 떨어진다.

생굴 탄 것은 1kg당 370원(석화조합 고시가격)이며 50坪 멧목 1個當 3,500kg정도 생산되는데 전량 통조림가공에 쓰며 주로 日本에 수출한다.

이처럼 한산도 일대의 沿岸도서지역에서 盛行되는 貝類養殖이 落島地域으로 가면 地貝類 外

出해 나간다. 沿岸島嶼地域에서는 그밖에도 파, 소채 등의 경제작물과 고구마, 보리 등을 심는다.

國島나 葛島와 같은 落島에서는 風害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늘 대신에 고구마와 보리를 산비탈에 심고 있다. 葛島에는 흙이 무성하게 자라서 흙뿌리를 캐어다가 전분을 내어 먹기도 한다. “흙섬” 또는 葛島라는 명칭도 이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山菜로는 더덕, 쑥, 고사리, 원추리, 뽕떡 등이 있다. 농기구로는 쟁이, 삽, 훔칭이 등이 있으며, 논이 없고 밭이 있다 해도 전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蓄力을 이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信仰 및 儀禮生活

巨濟島 隣近 島嶼地方에는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고등종교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傳來하는 洞祭가 섬마을을 單位로 해서 주기적으로 거행된다. 여기에서 蓮花島와 葛島를 중심으로 洞祭를 살펴보기로 하자.

蓮花島의 경우 매년 음력 설달 그믐날 洞祭를 시작해서 다음 날인 정월 초하루 아침(7시경)까지 지내는데 갈도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지내며 定한 날짜가 따로 없고 봄철(음 3,4月)에 날 봐서 좋은 날(비 안오고 바람 없는 날)에 지내는 점이 다르다. 만약 궂은 일이 생기면 그 해에는 洞祭를 지내지 않고 다음 해로 미룬다.

이 두 섬에서는 모두 祭官을 동네에서 지명하거나 선출하고 있으며 祭官의 資格條件으로는 집안에 產故가 없고 喪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가 친척중에서도 이러한 有故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일단 지명되거나 선출된 제관 내외는 한이레동안 일체의 잡된 行爲를 삼가고 몸을 깨끗이 하며 집의 出入口에 작대기를 꽂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표시를 해둔다. 이후 장보러 갈 때나 음식장만할 때 또는 제당에 올라갈 때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야 하며 말도 해서는 안되고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되어있다.

蓮花島에서는 洞祭때 祭官 이외에 스님을 불러 오기도 하는데 1977년에는 육지도에서 스님 두사람을 불러다가 마을사람들의 無病과 無事故·豐漁를 기원토록 하고 수당으로 6만원 가량 주었다. 제관은 강위득(55), 박정순(52) 내외였으며 祭費用으로 3萬원을 동네에서 받았다. 갈도에서는 충무, 삼천포, 남해 등지에서 대모(大舞, 大巫) 7,8명을 6萬원에 데려다가 78年 3月에 洞祭를 지냈다.

洞祭 지내는 과정을 연화리의 1977년 제관이었던 박정순(52)씨의 면담을 통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설달 그믐날 목욕제제하고 아침에 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땀 나무 등을 준비해 놓는다. 저녁 무렵에 집에서 장만한 음식, 제주, 떡 등을 깨끗한 곳에 담아가지고 오직 동네를 편케 하겠다는 一念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당에 올라간다. 당에 올라갈 때 아무도 보지 않아야 한다. 당문

앞에서 기침을 서너번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왔다는 表示로 하는 것이다. 밥은 당에서 짓는다. 젓상에 올라가는 음식으로는 미역,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채소와 사과, 배, 삼지(강정), 삼실개, 대추, 밤 등 온갖 것, 조푸(두부), 밤 그리고 해물로는 오직 명태만 쓰고 肉類는 올려 놓지 않는다.

염불은 스님이 하고 제관은 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동네사람들의 안녕을 빈다. 집에 와서 잠시 쉬다음 아침 5시경(즉 정월 초하루) 아래당에 내려가서 돼지머리등을 차려놓고 다음 일년을 잘 지내게 해주십사 빌고 각 가정에서도 가정제를 지낸다. 아침 7시 쯤에는 바닷가에 젓상을 차려놓고 용왕님께 염불한다.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팽파리, 징 등으로 농악을 연주하며 하루 종일 온 동네가 같이 어울려 논다. 그 뒤에 靑年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술을 청하여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葛島에서는 洞祭를 지내고 쥐긋, 뱀긋을 지내는 것이 特異하다. 이것은 갈도에서 쥐와 뱀이 많아서 농사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관은 뽕한 날부터 계속 공을 들이다가 당일 저녁 8시쯤 딱, 나물 등을 차려 가지고 당으로 올라가 上堂에서 밥을 짓고 밤 12시쯤 제관만 참여하여 제사를 지낸다. 제관 내외가 8,9번 절을 하며 우리나라 통일 잘 되고 고기 잘 잡히고 해초도 잘되고 배사고 없이 집집마다 무고하게 해달라고 祝願을 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제관은 축원이외는 말을 일체 하지 않고 병어리 흥내로 意思를 소통한다. 제가 끝나면 제수를 가지고 집에 내려와 아침에 동리 어른들과 나눠 먹는다. 제관은 제사이후 3日 주야동안 음식도 대소변도 하지 못한다.

제사 다음날 동리사람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下堂에서 하룻밤 별신굿을 지낸다. 이 작은당의 별신굿에는 제관(제주)이 참가하지 않고 무당이 행사를 주도하는데 이때 장고, 북, 징 등이 동원된다.

洞祭는 3일간 하는데 둘째, 세째날은 龍王祭로서 마을사람이 전부 모여서 한다. 한 집마다 10되씩 걷은 탁주를 어울려 마시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洞祭費用은 1977년에 20萬원 들었는데 매호당 똑같이 얼마씩 걷어 부담하며 제관에게 주는 수당으로는 수물전에 놓였던 그릇을 제관이 가져가는 것 뿐이라는 것 또한 蓮花島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洞祭는 落島地域과 蓮花島 등에서 盛하고 沿岸島嶼로 오면 약화된다. 이것은 물론 落島地域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陸地의 외래文化와 접촉이 비교적 적고 洞祭의 의미가 그들의 生活(고기잡이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國島에서는 부산 서면에 本部를 둔 태극도가 76年 3월에 교회를 設立해 약 10名 가량의 信徒를 갖고 있다. 강명도(58)를 중심으로 하는 이 10명은 모두 外地에서 移住해온 사람들이며 매달 한번 지내는 이들의 祭祀는 他人에게 공개하기를 극히 꺼리는 行事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국도의 한쪽 구석에 박혀 주민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다.

提 言

自然은 人間이 그 속에서 生活하고 또 그것에 依存하며 利用하는 삶의 터전이므로 效果的인 自然保護는 항상 人間의 生活條件과의 밀접한 聯關性을 가지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國島 住民은 섬 부근에 좋은 漁場을 갖고 있으면서도 船着場이 없기 때문에 넓은 바다의 많은 資源보다도 좁은 섬의 제한된 資源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것은 葛島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의 염소방목과 뿔감채취는 섬의 草木을 점점 없애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리라 보아진다.

이들 住民들(특히 落島인 國島, 葛島)에게 소득수준을 높이는 事業, 이를테면 선착장 시설이라든가 漁船의 확보와 漁撈裝備 및 技術의 改善 등을 마련해 줌으로써 住民의 눈을 좁은 섬 자체에 限定시키지 않고 보다 넓은 바다로 돌리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인 自然保護의 成果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Summary

This report is based on the data gathered during our scientific expedition to the isolated islands off Geojedo island on the South Coast of Korean Peninsula from 18 to 23 in July, 1978. Being on a brief voyage by a police patrolship, we the members of the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team of the expedition observed all ten islands which administratively belong to Hansan-myeon and Yokji-myeon of Tongyeonggun, and to Dongbu-myeon of Geoje-gun, South Gyeongsang Provinc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the islands we collected genealogical records and legends related to the history of settlement. Most of the data on behavioral patterns were obtained through observation and interview. To obtain quantitative data, we used various official records of the census registration, documents, and statistics.

Many written documents reveal the remains of prehistoric and historic times of Korea discovered on the above islands. According to the legendary data we gathered, the first settlers of Bijindo island settled down there on the island four hundred years ago. Genealogical data, however, indicate that the history of the settlement of the island goes back no farther than one hundred years.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on Bijindo in 1978 was 174 and the total population was 975 people of which 490 were male and 485 were femal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cord of the census registration. In this report we analyzed the composition and migration of the population residing

on the islands surveyed. The results show that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Bijindo population were native islanders. Available marriage network data indicate that of the 64 women born on a coastal island (Bijindo), 5 were married within the island territory. While on an isolated island (Maemuldo) 8 of 29 native women were married within the island territory.

The main subsistence activities of the islanders are farming, seaweed collecting, and fishing. On the small pieces of slope land they intensively grow various mixed crops such as barley, corn, sweet potatoes, and vegetables for home consumption and garlic for sale. While around the coastal islands there are many oyster culturing farms, there are many natural seaweed collecting grounds around the isolated islands. The most common fishing methods are angling with a hook and line, long line fishing, and dragnet fishing near the shore of the islands. For these types of fishing, all that was required were small wooden boats with a sail and oars and a two-to-four-man crew. Therefore, these fish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the related fishermen from a single household or by two-to-three households working cooperately.

The most popular belief and ritual system which involves the whole islanders is that of *Tongje* (a ceremony for the village god), which is performed on the last day of the Year at *Tang* (a shrine for the village god). In theory all the islanders participate in *Tongje*, but the actual ceremony is carried out by the special functionaries of the rite who are nominated or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ritual cleanliness. When preparations are made for the ceremony childbirth and death within the village are tabooed because of their uncleanness.

參 考 文 獻

金元龍·任孝宰; 1968, 南海島嶼考古學,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東亞文化研究所.
內務部; 1973, 島嶼誌.

李海英·韓相福; 1974, “白翎島의 社會學 및 人類學的 調查報告”, 白翎島·大靑島 學術調查報告, 서울新聞社, pp. 337-388

韓相福·全京洙; 1978, “格列飛列島의 人類學的 調查報告” 格列飛列島 및 隣近島嶼綜合學術調查報告書, 서울 韓國自然保存協會, pp. 131-155